
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

2018. 6. 26

관계기관 합동

목 차

1. 추진 배경	1
2. 세부 적용 방안	2
3. 기대 효과	3
4. 추진 일정 및 조치 사항	4

1 추진 배경

- **현행 카드수수료 산정방식**(적격비용 원칙)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**적격비용***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식 (적격비용↑ → 수수료율↑)

* 조달비용, 대손비용, 마케팅비용, 일반관리비용, **밴수수료비용** 등

- 이중 **밴수수료비용**은 카드결제시 승인·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**밴사**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정되며,

- 카드사는 그동안 동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**결제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중 (정액제)**

*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,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.0%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,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.01%만을 부담

⇒ 편의점, 슈퍼, 제과점 등 **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**(소액결제업종)에 상대적으로 **높은 수수료율**이 적용되어 부담이 큰 측면

- 이에 당·정협의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**밴수수료 산정방식**을 정액제 → 정률제로 **개편***기로 발표('18.1월)

*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 →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

<밴수수료 산정방식 개편방안 예시>

	현행(정액제)	개선(정률제)	비교
소액결제업종 (예 : 평균결제금액 1만원)	100원/1만원 = 1.0%	0.3% (= 30원/1만원)	0.7%p ↓
거액결제업종 (예 : 평균결제금액 100만원)	100원/100만원 = 0.01%	0.3% (= 3,000원/100만원)	0.29%p ↑

2 세부 적용 방안

가. 적용 시점 및 대상 : '18.7월말부터 일반가맹점에 적용

- ① 시점 :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발표 한대로 영세·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에 맞춰 '18.7.31일 시행
- ② 대상 :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·중소 및 특수가맹점*을 제외한 일반가맹점('17.7말 기준 약 35만개,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)
 - * 영세·중소는 우대수수료율(0.8·1.3%) 적용,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대중교통 등 특수가맹점은 차감 수수료(예 : 1.5%) 적용

나. 적용 방식 : 밴수수료를 정률화 하여 카드수수료율에 반영

- ①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수수료 산출(=밴수수료 총액/카드매출 총액)
 - ⇒ 평균 0.28% 수준(일반 승인·매입방식 기준, 카드사별 차이 존재)
- ② 가맹점별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* 중 정액제 下에서 산정된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수수료로 대체하여 카드수수료 재산정
 - * 수수료 원가항목 : 조달비용, 대손비용, 마케팅비용, 일반관리비용, 밴수수료 등
 -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등 여타 원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

다. 추가 조치 : 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수수료 상한 인하

-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*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수수료 상한 인하 : 2.5% → 2.3%(0.2%p↓)
 - * 무서명거래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및 뱅크간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단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

3 기대 효과

※ 시뮬레이션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 발생 가능

① 뱅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,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,

○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해소 효과(형평성 제고)

* 특히, 매출액 5~10억원 구간의 소액 vs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.34% vs 1.90%로 격차가 매우 컸으나, 개편 이후에는 평균 2% 수준으로 거의 동일

<뱅크수수료 체계개편 효과 시뮬레이션>

구분	수수료 인하 가맹점(소액결제)				수수료 상향 조정 가맹점(거액결제)			
	5~10억	10~50억	50억~	소계	5~10억	10~50억	50억~	소계
평균 수수료율 수변동	2.34 → 1.98%	2.34 → 2.12%	2.15 → 1.96%	2.22 → 2.00%	1.90 → 2.00%	2.02 → 2.11%	1.95 → 2.04%	1.96 → 2.04%
평균 매출액(억원)	7.2	12.7	235.4	31.9	7.3	18.9	971.6	109.4
평균 결제 금액(만원)	2.1	2.5	3.3	2.4	13.6	11.3	10.5	10.8

* 영세가맹점(매출액 3억원 이하) 및 중소가맹점(매출액 3~5억원)은 제외

②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, 편의점, 슈퍼마켓, 제과점, 약국,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,

○ 자동차, 골프장, 가전제품, 면세점, 백화점,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

<수수료율 인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>

업종	인하 가맹점수 (업종내 비중)	평균 수수료율 변동 (인하가맹점 기준)	가맹점당 평균 수수료 변동
일반음식점	5.4만개(69.5%)	0.21%p ↓	201만원 ↓
편의점	1.8만개(99.6%)	0.61%p ↓	361만원 ↓
슈퍼마켓	1.7만개(99.1%)	0.26%p ↓	531만원 ↓
제과점	0.3만개(99.7%)	0.55%p ↓	296만원 ↓
약국	1.0만개(83.2%)	0.28%p ↓	185만원 ↓
정육점	0.5만개(72.7%)	0.23%p ↓	70만원 ↓

〈수수료율 상향 조정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〉

업종	상향 조정 가맹점수 (업종내 비중)	평균 수수료율 변동 (상향 조정 가맹점 기준)	가맹점당 평균 수수료 변동
자동차	12개(100%)	0.19%p ↑	83.4억원 ↑
골프장	315개(81.0%)	0.08%p ↑	1,323만원 ↑
가전제품	0.2만개(82.4%)	0.16%p ↑	1,559만원 ↑
면세점	31개(72.1%)	0.10%p ↑	1.2억원 ↑
백화점	22개(55.0%)	0.08%p ↑	1.1억원 ↑
종합병원	292개(64.7%)	0.08%p ↑	1,496만원 ↑

③ 한편,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(2.5% → 2.3%) 조치에 따라,

- 정률제 적용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*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,

* 상한 적용받는 상향 조정 가맹점 중 매출액 5~50억 구간 가맹점은 약 1.6만개(비중 약 90%)

- 정률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

4 추진 일정 및 조치 사항

- 영세·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 조정 및 적용 (‘18.7.31)
-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 점검 (‘18.8월~)
 - 특히,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 실시

참고1

수수료를 인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

< 일반 음식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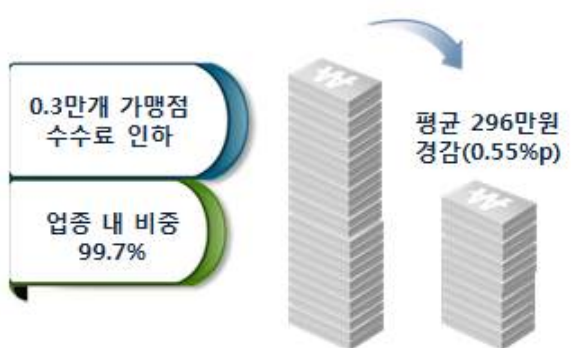
< 편의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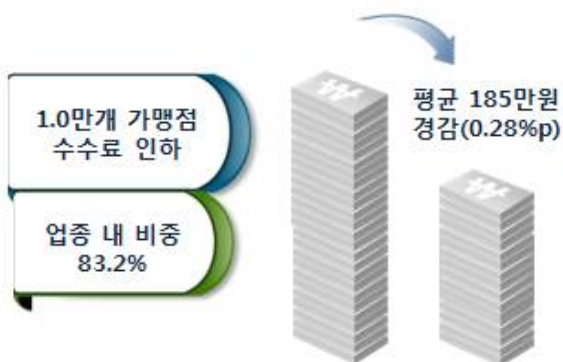
< 슈퍼마켓 >



< 제과점 >



< 약국 >



< 정육점 >



참고2

수수료를 상향 조정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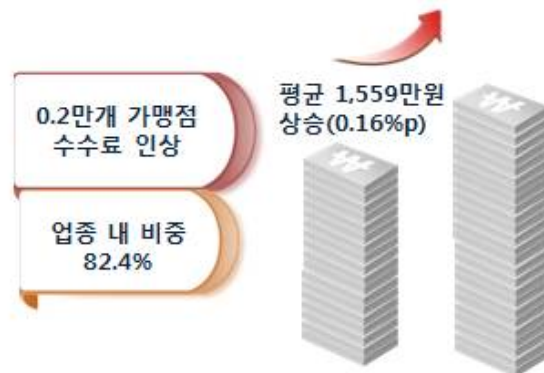
< 자동차 >



< 골프장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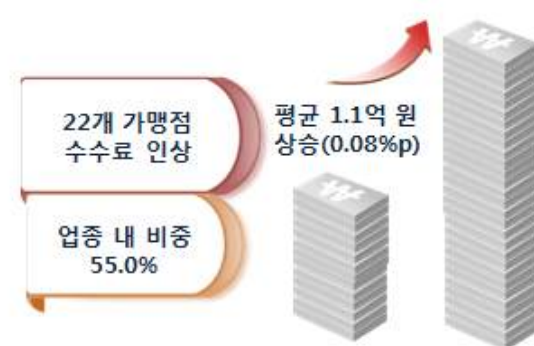
< 가전제품 판매점 >



< 면세점 >



< 백화점 >



< 종합병원 >

